

#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제과인

## 화곡동 케익이벤트 대표 박연규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현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렇지만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고 있다.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박연규씨를 만나보았다.

세상을 살다보면 각박한 현실속에서 자신의 평안함에만 안주하기 쉽다. 물론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음을 비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작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먹고 살만하면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통하는 세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화곡동에서 케익 이벤트 대표로 있는 박연규(45)씨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는 박연규씨의 선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멀리서 빵을 사러 올 정도로 소문이 나 있기도 하다.

### 제과와 운동을 겸한 입문 시절

박연규씨는 고향인 대전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제과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그가 제과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둘째 형님이 서울에서 기술자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추석 때 집에 가지고 온 빵을 먹어본 다음부터라고 한다. 그 시대에는 밥 이외에는 마땅히 먹을 것도 없어서 인지 그 때 먹은 빵은 정말로 맛있었다고 한다.

둘째 형님의 소개로 74년 충무로에 있던 태극당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된 박연규씨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일했다. 첫해에는 빵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저것하는 보조 생활만 1년을 한 후 빵굽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는 제과점에 근무하는 틈틈이 한국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게 됐는데 한 때는 권투 도장의 관장이 박연규씨의 강한 펀치에 가능성을 발견해 권투선수가 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을 정도였다.

“권투 도장에 3개월쯤 나갔을 때부터는 2,3년 된 선배들과 스파링 했을 정도로 펀치가 단단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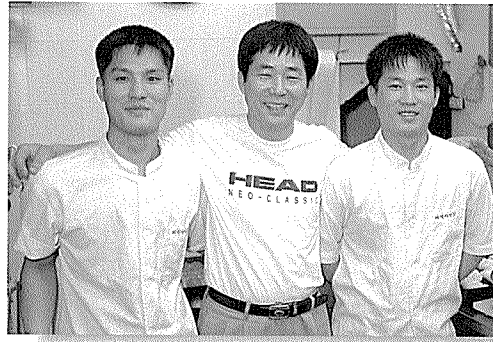
지만 제가 태극당을 떠난 뒤에 권투 도장 관장님이 저를 찾기 위해 여러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힘든 제과일과 운동을 병행하다보니 몸이 극도로 안 좋아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쉬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반년을 쉬던 그는 이번에는 작은 자영제과점에 다니면서 계속 기술을 쌓아 갔다. 다음으로 옮기게 된 그랜드호텔 제과부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83년 명동에 있었던 ‘케익파라’의 부공공장이 돼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케익파라’는 직원이 30명이나 되는 대형 제과점으로 다

큰 제과점과 달리 도넛이 유명해  
당시 일 매출이 300만원을 팔 정  
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진취  
적이고 성실했던 그는 공장장이 자  
리를 옮기자 그 자리를 맡아 책임  
자로서 제품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도넛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는 연구 도중 잠깐의 실수로 믹  
서 스위치를 건드려 그만 손뼉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 박연규씨는 직원들과도 인간적인 정을 쌓으며 지내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박연규씨에게 다가온 행운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부천에 있는 몽블랑제과에서 근무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날 박연규씨는 부천역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이드신 분이 추운 날씨에 잘못 될까 걱정스러워 자신이 직접 그 할머니를 모시고 우선 식당으로 향했다. 가진 돈이 없었던 그는 외상으로 설렁탕 한그릇을 사드린 후 할머니의 아들 친구가 근처인 소사동에서 옹기장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박연규씨는 그길로 할머니를 소사동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에 대해 잊고 지내고 있었다.

그후 케익파라에서 근무할 당시인 83년 12월 25일 그는 동료들과 재미 삼아 친 고스톱에서 월급까지 날리는 웃지 못할 일을 당했다. 박연규씨는 집으로 갈 차비 빼고 딱 1,000원 남은 돈으로 그 당시 500원하는 복권을 두장 샀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2월 31일 그는 꿈속에서 예전에 부천에서 자신이 도와주었던 할머니를 만났다고 한다. 그 꿈을 끈 후 다음날인 84년 1월 1일 박연규씨는 복권 2등에 당첨되어 1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거머쥐게 된다.

“정말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거나 제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습니  
다. 둘째 형님이 점포를 오픈하게 돼서 300만원을 드렸고 동생이 결혼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뒤로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1년 정도 아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찾아와 술도 사주다보니 지출이 많았습니다.”

박연규씨는 케익파라의 공장장으로 대우도 좋고 급여도 넉넉한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후배들을 위해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개업을 생각하게 된 그는 고모가 살고 있었던 지금의 동네에서 일주일 동안 시장조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빵봉투를 유심히 관찰하던 그는 빵봉투에 새겨진 상호가 멀리 시내에 있는 제과점인 것

을 알게 됐다. 외부에서 사오는 빵 같은 품질의 제품을 동네에서 구입하게 한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박연규씨는 86년 퇴직금과 애들 돌반지까지 팔아 자신의 점포를 어렵게 오픈했다. 이 때 둘째 형님이 그에게서 받았던 300만원을 다시 돌려주어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생각대로 빵은 진열되기가 무섭게 잘 팔려나갔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던 박연규씨는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면 다음날 새벽 3시가 돼야 잠 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 당시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은 친동생이 제과일을 배우며 도와주기 위해 박연규씨의 점포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동생의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만 발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형제간에 모이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그 때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 사랑과 빵을 나누고 싶어

박연규씨는 제과점이 자리를 잡은 후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청소년 선도위원을 비롯 새마을 지도위원 등의 일을 맡아 하며 보람된 삶을 살던 그는 IMF 이후 늘어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동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 실태를 자세히 알게 된 박연규씨는 굶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빵 전하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제는 전령팀을 만들어서 날마다 관내 31가구의 결식아동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인식부족으로 주위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현재는 인근의 제과점과 공동으로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빵을 전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선행이 라디오와 TV에서도 소개됐는데 이 것을 시청한 사람들 중 일부가 멀리서 빵을 사러온 경우도 있었다.

“제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빵뿐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저의 두 아들이 아빠와 같이 봉사하고 싶다고 말할 때 정말 흐뭇하더군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대가를 바라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은 못될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선행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우리 사회에 맛있는 빵과 더불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박연규씨의 모습에서 깊어가는 가을날 뜻있는 열매가 결실을 맺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2]

<글/ 정현상>